

## “WCC · 교황청과 협력하되 복음주의는 더 강화”



토마스 슈르마허 WEA 신학위원장 인터뷰

최근 세계복음연맹(WEA)은 세계교회협의회(WCC), 교황청과 함께 공동의 문서인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를 발표했다. 선교의 윤리적 측면만을 다뤘지만, 문서에서 복음주의의 교계가 예외없이 언급, 그리고 가톨릭과도 최초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국내 복음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주목하고 그 의미에도 관심을 모았다.

이에 크리스천투데이에는 WEA 신학위원장인 토마스 슈르마허(Schirrmacher)와 이메일을 통해 서문 인터뷰를 했다. 먼저 슈르마허 박사에 따르면 이번 문서 협력이 갖는 의미는 “기독교 공동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이 구체적인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그는, “WEA와 WCC 그리고 교황청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기독교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나 슈르마허 목사는 “WEA는 우리가 협력하려 하는 기독교 커뮤니티들과의 신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이같은 원칙은 다 종교 커뮤니티와의 협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슈르마허 박사는 “복음주의자들의 두 역할, 즉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교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일치성을 위해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 치유하고, 교육하며, 세계와 각 나라 정부에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인류의 공공의 선을 이루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타 종교와의 교류는 빠질 수 없는 요소”라며 종교 간 협력에 대한 WEA의 기본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협력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양보나 타종교가 믿는 바에 대한 수용이 포함될 수는 없다”고 강조한 슈르마허 박사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에서 일시적으로든 지속적으로든 물러나게 하는 타종교와의 교류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WEA의 원칙”이라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 살롬장애인선교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 개최

‘후원금 200불이면 휠체어 1대와 목발 2세트’



살롬장애인선교회가 제 8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휠체어 사랑 이야기’란 주제로 17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제 8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휠체어 사랑 이야기’란 주제로 17일 저녁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1999년 6월 1일 시작해 지난달로 설립된 지 만 12년이 지난 살롬장애인선교회는 2010

년까지 총 6개국에 22차례 걸쳐 휠체어 약 6,500대와 기타 의료보조기 26,700여점을 선적해, 약 33,000명 이상의 해외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펼쳤다. 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는 “올해는 중앙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한 회교국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휠체어에 실어 보내려고 한다”며 “후원금 200불이면 휠체어 1대와 목발 2세트를 구입해 총 3명의 장애인들에게 다리의 역할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후원 동역자가 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사회에 박모세 목사, 수화통역에 강순례 씨의 진행으로 KAM Chorale의 합창, 최인달 교수의 바리톤 독창, 남가주 농악교회 수화찬양팀의 수화찬양, SDM 문서선교부의 영상, SDM 찬양팀의 특별찬양, 색소폰 앙상블, 연합찬양 등 뜨거운 분위기에 공연이 진행됐으며, 선교회 이사장 유영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18년 전 미국에 온 박모세 목사는 신체적 조건 외에도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꺼려 숨어 지내는 장애인을 적극 찾아내서 섬기는 ‘Search & Serve’를 모토로 살롬장애인선교회를 세웠다.

문의: 213-387-7724  
토마스 맹 기자

## ‘건강한 교회는 가정 공동체서 완성’



오렌지카운티 목사회는 장학일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렌지카운티 목사회(이하 OC 목사회, 회장 손태정 목사)와 OC 기독교 전도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가 장학일 목사 및 안혜신 사모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를 15일부터 16일까지 남가주 형제교회(담임 이천선 목사)에서 개최했다.

장학일 목사는 OC 기독교 전도연합회에서 초청,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인랜드교회, 은혜한인교회에서 집회 인도차 남가주에 방문했다.

15일 장학일 목사는 오전에 세미나를 인도하고, 오후에는 안혜신 사

모에게 바통을 넘겼다. 안 사모는 장 목사와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자주 강연회를 이끌고 있다. 안 사모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 아니라 가정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이와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제자들이 물음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다. 한 몸이 된 제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가정을 세움으로써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셨다. 결국 그

## 장학일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열려

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

의 초석이 됐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가정으로서의 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 사모는 “교회는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 한다.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얘기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목장이 건강해지 교회

건강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양육이 되는 것 같이 건강한 교회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  
213-386-5500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Hansol** 한솔종합보험(주)  
www.hansolins.com Lic.#0E35909  
생명보험 • 사업재보험 • 재정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건강보험



메디케어에 관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급변하는 메디케어 규정의 궁금하신 점들을 이번 세미나에서 대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거나 가입하셔야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 소지자는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주제 : 연방정부제공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확실히 알고 사용하기

강사 : 한솔시니어서비스데이빗강 (메디케어스페셜리스트)

시간 : 주제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개별 질문 30분

내용 : 1. 메디케어란?  
2. 메디케이드(메디-칼)란?  
3. 메디케어 관련 건강 보험의 종류  
4. 메디케어 관련 각종 혜택의 범위

날짜 : 7월 31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뽀델장로교회 (담임목사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A., CA 90036  
문의 : (800) 300-0703 / (213) 500-4563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한솔보험



# '도시를 성결케 하는 것이 변화의 초석'

[인터뷰] LA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



이성우 목사

이목사는 총신대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에서 M.Div를, 풀러신학대에서 D. Min을 마쳤다. 다음은 이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성시화운동본부란?**  
전 교회가 연합하고 힘을 모아 도시를 복음화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곳이다.

성시화운동본부는 연령대별 그리고 직장인, 학생 등 전 계층과 전 가능별에서 사람들을 세우면 도시가 복음화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35개의 도시에 본부가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성시화운동은 전도라는 개념을 새롭게 하며 커뮤니티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운동이다.

**-LA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영적 부흥이다. 그것을 위해 도시구석 구석을 성결케 하는 일이 필요한데, 잘못된 법들을 바로 잡는 일도 도시를 성결케 하는 일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일이 어렵다. 자라스런 한인들이 성시화운동을 주류사회에 알리려 하는데, 한인들이 이 미국에서 청교도의 사명을 다 해야한다고 본다.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이것은 우리 한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타민족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 성시화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회를 도덕적으로 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선 모여야 하고, 모이기 위한 대회를 통해 교회들을 동력화 하고 있다.

또 본부에는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기에 헌신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인 고국·미국 체험학교 등도 하고 있다. 고국체험학교는 1.5세 2세들에게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며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미국 체험학교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미국 문화를 접하게 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다. 교회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국의 경제난으로 실업은 이어지고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은 사실이다. 교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돕는 것이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보아 한다.

이태근 기자 tglee@chdaily.com

# 제1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 개최

목사장로부부합창단 주최, 10개 교회 및 단체 참가



목사장로부부합창단 주최 제1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제가 17일 개최됐다.

목사장로부부합창단 주최 제1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제가 17일 오후 7시 감리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가합창제에는 감사한인교회(지휘 최운용), 남가주 경신교당(지휘 강호원), 싸우스베이 한인교회(지휘 김승업), 가주 장로교회(지휘 김정화), 미주기독교목우회중창단(단장 양승걸), 나성연약교회(지휘 이신희), LA사랑의부부합창단(지휘 이영재), 라팔마연합감리교회(지휘 박성숙), 오렌지힐교회(지휘 이준현), 목사장로부부합창단(지휘 전종재)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목사장로부부합창단 단장 김영대 목사는 "중·소형 교회의 찬양 활성화를 위해 작은 교회의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오상아 기자 saoh@chdaily.com

##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메디칼 오피스 매니저/리셉티스트/코디네이터, 건축실제, 의사보조, 약사보조  
2. 비즈니스 매니저/리셉티스트,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 L20 발급, 방문비자 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 ORT 졸업 후 워크퍼밋,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 OC교협 제7차 임원회, 베리칩 관련 포럼 진행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 교협. 회장 박용덕 목사)가 올해 7차 임원회를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임원회는 1부 예배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영적부흥

및 교회의 평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세계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한 합심기도로 이어졌다.

정기회의는 박용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 주요 안건으로는 오는 8월

에 있을 OC 평통 및 교협 연합 조찬기도회 건이 다뤄졌다. 이 행사는 하워드 존슨 호텔에서 열리며 날씨는 미정이다.

또 8월 14일 OC교협 연합 광복절 예배 및 9월 8일-10일 나점일 목사(인천 주안장로교회) 초청 연합 집회

(장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건이 다뤄졌다. 2부 순서는 베리칩(Verichip)과 관련, 윌터슨 목사와 오이론 목사의 인도로 포럼이 진행됐다.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토마스 맵 광고국장: 이민규  
지사망: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남가주빛내리교회, 선교사 파송예배 드려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조제의 선교사와 오의영 선교사 파송예배가 지난 17일 주일 오후 3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래 전부터 선교사를 꿈꿔왔다는 조제의, 오의영 선교사는 "낯선 땅이지만 N국으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결단하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참석한 성도들은 함께 파송기도했으며, 파송기관인 GMP(미주 대표: 이준호 목사)로부터 파송장 전달식, 남가주빛내리교회의 파송패 전달식, 송원 선교사(N국 선교사)

와 이윤수 목사(한국인선교사미주 대표)의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후원 문의: wingscho@hotmail.com 토마스 맵 기자

##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미주대한신학대학

###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미주 대한신학대학교 인사 발령  
표어: "대신인은 대신으로" (시온이즘)

대한민국 장로교 4대 교단중 하나인 "대신교단" 창설자 김치선 박사 큰사위 이의완 박사 (1). 현재 대한 예수장로회 미주 총회 총회장, (2). 명문 안양대학 전 총장(안양대학은 안양 캠퍼스와 평창 캠퍼스가 있음, 서울 대학 합격률 제 1위), (3). 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3번 역임(제10대, 제11대, 제13대)

**"특명" 이의완 박사에 의하여 선임된 인사 발령 명단:**

제2대 신임총장: 강부웅 박사(대 부흥사)	교목실장: 박병구 박사(성재복음선교회 시무)
제1대 류당열 목사 이임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미주 총회 대표회장)	교수부장: 이원갑 박사(나성 영락교회 출석)
수석 부총장: 변영익 박사 (제3대 차기 총장, 변영교회 당회장)	교회처장: 표세홍 박사(에덴교회 시무)
제42대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차기 회장)	학생처장: 이현국 박사(미주 복음방송 아나운서, LA 사랑교회 출석 목사)
대학원장: 유종열 박사(나성 열린문 교회 협동 목사)	도서관장: 강기운 목사(남가주 선린교회 시무)
영성원장: 유숙영 박사 (Forever21 사장 장도원 장로(박사) 누님)	교무실장: 김성실 전도사(동성안교회 전도사)
부총장: 김호 박사(나성 중부교회 시무)	교수진: 임영주 박사(설교학), 김숙영 박사(교회음악), 문요셉 박사(Candidate)(요한계시록)
부총장: 권오달 박사(에덴교회 시무, 통신처 담당)	김영구 박사(영성학), 황인덕 박사(한의학)
부총장: 현종일 박사(미군 8군 교회 설교 담당)	정종이 박사(종말론), 이동희 박사(교육학, 상담학)
부총장: 김상돈 박사(패럴라 한인교회 당회장 재직 교인수 1,000여명)	김명화 박사(찬양 활동학)
부총장: 박효우 박사(동성안교회 당회장, 제44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	
부총장: 장인관 박사(리버사이드 중앙교회 시무)	
학장(특수선교담당): 김영배 박사(영빛교회 시무)	

※(각 부서 임기 2년 단임제)

주후 2011년 7월 17일(제 63주년 제헌절)부 인사 발령 대한 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 총회장 이의완 박사 미주 대한신학대학 재단 이사장 류당열 박사

**총장이 취임식 예배**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절 합니다.

**제 1대 총장 이임(류당열 박사), 제2대 총장 취임(강부웅 박사)**

■ 일시: 주후 2011년 9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미정  
■ 설교: 김세창 박사(김치선 박사 장남, 전 안양대학 총장,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3번 역임(제 16대, 제 17대, 제 18대))  
■ 축도: 이의완 박사(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3번 역임(제10대, 제11대, 제13대), 전 안양대학 총장)



# 갈릴리선교교회, 7월 금요일성령축제 개최

15일 장석천 목사, 22일 정영민 목사, 29일 박성호 목사 초청



강사로 초청된 장석천 목사

갈릴리선교교회(담임한천영 목사)는 7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지역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금요일성령축제를 개최한다. 15일은 장석천 목사(뉴송교회)가 말씀을 전했으며 22일은 정영민 목사(포도원교회), 29일은 박성호 목사(탄남의교회)가 강사로 초청된다. 지난 15일 장석천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행 1:8)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훌륭한 환경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없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 첫 번째 것이 은사이며 두 번째는 비전, 세 번째는 인격의 변화이다"고 전했다. 장 목사는 "예수의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컴퓨터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꿈이었다"며 "무엇을 위하여 열

심히 일하고 살 것"인지 점검하기를 당부했다. 장석천 목사는 러시아에서 10년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로고스교회 부교역자로 시무하다 작년 뉴송교회를 개척했다. 한편 갈릴리선교교회는 부서마다 여름행사를 준비해 7월 30일-31일은 어린이부 여름축제, 8월 1일-3일은 인디언선교 비전트립, 8월 4일-6일은 청소년부수련회를 진행한다. 이번 금요일성령축제는 장년행사로 여름행사 중 첫번째로 진행됐다. 오상아 기자 saoh@chdaily.com

# 소망우물스폰서투어원정대 아프리카 차드 찾아



소망우물스폰서투어원정대는 6월 6일부터 15일까지 차드를 방문했다. ©소망소사이터

비영리단체 소망소사이터(이사장 유분자)·구호단체 굿네이버스 USA·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아프리카 국민국 차드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3월 시작한 '소망우물 프로젝트'가 1년 만에 애초 목표했던 40개 우물을 훌쩍 뛰어넘는 100개 소망우물을 달성하며 10만여 차드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됐다. 이에 소망우물스폰서투어원정대는 지난 6월 6일부터 15일까지 차드를 방문해 우물을 돌아보며 우물을 가진 후 변화된 주민의 삶을 직접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 동참한 자원봉사자(소망소사이터 봉사자)는 "우물을 만든 마을마다 맑은 물을 마신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져 물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사라졌고, 물을 멀리 길으러 갈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학교에 다닐 수도 있게 되어 그들의 미래를 조금씩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며 "우물을 두고 난 분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두 마을이 우물을 만들며 화해하는 감동 어린 이야기도 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물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며, 차드 안에서 가장 빈곤한 마을에 자립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며 "장기간의 내전으로 지친 마음에 스스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심어주어 지역 사회 개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지역 주민은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 운영을 위한 작은 모금을 하고 어떤 마을은 굿네이버스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건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차드 지역의 우물 1개는 지역주민 800~1,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한편 이번 원정에는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목사, 굿네이버스 이병희 사무국장, 굿네이버스 황 윈프 레드, 소망소사이터의 차원경 봉사자가 참여했다. 오상아 기자

# 11월 초에 영성 리더십세미나 열린다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주 강사에 송정명·정도량·정우성 목사

4차원 영성 리더십세미나 및 MTS(Ministry Training School)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린다. 참석 대상은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이며, 주최는 남가주교협(회장 민중기 목사), 후원은 OC 교협(회장 박용덕 목사)에서 한다. 세미나 주 강사에는 성경·예배·기도, 성령·전도, MTS 사례발표와 관련해 송정명 목사(미기총 회장)가, MTS의 운영과 신학, 세신사, 소그룹, 은사·중보·제직과 관련해 정도량 목사(러시아복음주의신학교 목회대학원 원장, MTS 및 4차원 영성 전문강사)가, 4차원 영성세미나에 대해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 담임)가 강의에 나서며, 특강에

는 민중기 목사와 최영빈 목사가 나선다. MTS는 2003년에 교회성장연구소가 개발해 한국교회에 보급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 시스템으로, 평신도 신학과 운동, 제자훈련, 셀운동, 알파코스, 멘토링의 원리를 한국교회의 상황에 적용했으며,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 개발 프로그램이다. 정도량 목사는 "영국 성공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파'가 있는데, 7단계 과정으로 거듭남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성령의 밤'이란 일정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리가 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교가 시작되는 원리다"라며 "알파의 중요한 개념은 믿음과

대답을 끌고 나가는데, 마지막 한 시간 여 동안 성도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해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묻고 답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진리를 깨달아 가는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MTS는 체험적인 신앙과 지적인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리고 기존의 구역제도의 틀 안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원하는 온전한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라며 "MTS는 너무 어렵지도 않고 적당 중점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실제 삶에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 원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우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213-448-3493 토마스 멩 기자

# 나성영락교회, 태신자 초청 집회 가져

박인수 교수와 음악 친구들 콘서트도 열려



나성영락교회에서 17일 '제1차 아름다운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나성영락교회(담임 림형천 목사)에서 전도대상자를 초청해, 17일 오후 4시30분부터 8시까지 '제1차 아름다운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토마스 멩 기자

이번 1부 행사는 UCLA 한국음악과 후원으로 '박인수 교수와 음악 친구들 콘서트'가 열렸다. 테너 박인수 교수, 신동원 교수, 김성준 교수, 조한웅 씨, 박성훈 씨, 바리톤 김무섭 씨, 피아노 안정희 씨 등이 연주한 가운데 '향수, 우정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아메이징 그레이스, 진도아리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17여 곡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 콘서트가 진행됐다. 2부는 태신자 초청찬치로, 식사와 간증 및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멩 기자

# 미국 명상 인구 1,500만, 기독교인도 마음공부?

미국의 스타와 고위급 정치인, 정신병원의 환자와 죄수까지 명상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시점에 미국의 원불교 전체를 관장할 센터가 오는 10월 2일 뉴욕주 컬럼비아 카운티 클레버락에 '원 다르마센터'라는 이름으로 세워진다. LA 지역의 한 목회자는 "이미 '명상'·'피정'의 비슷한 의미로 기독교인들에게까지 많이 알려진 마음수련은 심지어 호흡법까지 알려주면서 호흡만 잘해도 장수할 수 있다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가톨릭이나 원불교는 개종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공부만 하라고 하니가 미국인 크리스천들은 마음 놓고 요가를 즐기

고, 마음수련을 한다"며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의 영성은 마음수련, 단, 요가로 점점 잠식되어 갈 것이고 기독교, 불교, 원불교가 그저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고 말했다. 오상아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전문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는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께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알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정회원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우안 파블로스 오르티즈 박사**  
브레노스 아이레스의 영성 운동의 주재이며 20년간의 성경적 제자훈련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화성, 제자훈련을 주제로 전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 스페인어권 그의 열과 TV를 통하여 방영되었으며, 그의 책 '제자훈련'은 출판 이후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성, 교화성, 제자도 분야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역전경과 내적자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스위스, 독일, 태국, 대만 등 여러 세계 각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깊은 영성을 자유여시는 하나님", "사적인 영을 대역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의 책을 한국어로 출판되어 세계적인 평양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있다

**에드 실보스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외장으로 전세계의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맥 에이모드, 빌 브라이트 박사들의 지도자들에게 강력 지지를 받고 있고, 그의 모델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 전체를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기를", "기도연도", "사명의 기름부음", "번역" 등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ATS는 미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와 미 문교성 (USDE)으로부터 공인된 미 연방 학력인증 기관입니다.**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이로써, 하버드신학대학, 예일신학대학, 프린스턴신학대학, 풀러신학대학, 탈벗신학대학, APU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우수 신학대학들과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MDiv 및 DMin 학위와 학점은 미국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됩니다.**

Shepherd 신학대학(원)은 신학과 영성, 성경과 신앙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하여 "For the Lord, To the World"의 기지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통역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일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로 영어와 학위프로그램 이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신학대학 프로그램	학위	프로그램	학 점
석사	B.A.B.S.	128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의 계장
석사	M.Div	96	
박사	D.Min	42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 나발과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

장재효  
서울성은교회 목사



### ◆ 사무엘상 25:23~38 ◆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중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중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인지 마음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중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여중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중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심이니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을 아나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으리라 내 주의 생명이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을 싸게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대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중을 생각하소서 32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라도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너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35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36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37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몹이 돌과 같이 되더니 38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삼상25:5-8)고 그의 부하 열명을 나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노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잠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25:10-11)"고 합니다. 그는 빈정대며 주인에게서 떠나 반란을 시도하여 갈라져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었다고 다윗을 빗대어 욕을 한 것입니다.

나발의 미련함은, 첫째로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사람인 다윗을 몰라본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껏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원리를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죄짓는 일에도 사용하고, 사치하고, 기본 내키는 대로 낭용하여 잘못 쓰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니다. 이같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나발이 했지만 결국 사용하는 것은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세 번째 미련함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 믿음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전혀 무지했습니다.

나발의 이런 미련함에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니다. 그리고는 사백 명 가량의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이백 명은 그 소유물 곁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도 실수였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동과 가족을 돌보아준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생각한 다윗은 나발이 자기를 목욕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로마서 12:19-20에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종으로부터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용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어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

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시라"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삼상25:14-17)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서둘러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과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등지 이백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나발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남편 나발이 너무나 서운하게 대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이름과 같이 미련한 자며, 자신이 신앙인적으로 그런 남편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자신이 가져온 이 음식으로 배불리고 구하는 용서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계획을 잡나이다. 곧 왕이 되실 텐데 왕좌에 오르게 되면 이런 미련한 사람 때문에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왕의 허물이 될까봐 이처럼 사정하고 비오니 미련한 자들을 죽일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나를 통해 이런 피 흘림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라도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너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삼상25:32-34)"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받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청을 허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에게로 가보니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하며 술에 크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기다려 술이 깬 후에 말을 했습니다.

신약적인 지혜는 반드시 해야 할 말도 상황과 때를 분별하고 상대를 잘 알아 상대가

영적인 유익함으로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12:36)"했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지켜가기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 안주고 시련에 들지 않게 하여 죄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상대의 행편 사정을 살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을 일러주고 깨우쳐 준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가일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신앙인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 나발이 다음날 아침, 술이 깨어 일어났을 때 전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그는 낙담하여 몹이 돌과 같이 되어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통한 아비가일의 신앙지혜를 본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반면 다윗을 알아보게 된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 맞추어 처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은 신앙인은 예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죽은 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회개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나발과 같이 없애버리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한 영적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의 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교회의 목자인 목사들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그 교회에 속한 양떼가 모두 하늘나라 가도록 하기 위하여 진액을 다하여 애쓰고 있다면 이런 목자의 뜻을 따라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5:2-3에서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속삭이였더라"고 아비가일과 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온에서 되정도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에 다윗이 육백 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훗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거역하여 불순종했고 오히려 자기를 추켜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아말렉과의 전쟁을 자기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공덕비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음에도 아말렉 사람들의 가족들을 골짜기에 자기 몫으로 숨기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세움 받고 쓰임 받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됴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공덕을 치하고 자기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득이 그를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울을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로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

람이었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맡겨진 양떼를 돌보아 있어도 맹수들과 싸우면서까지 목자의 사명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 신앙 인격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에게 망명생활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무용(武勇)에 뛰어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왕조를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었던 곳이 갈멜이었습니다. 다윗은 근처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던 나발의 목자들을 당시 강도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게 지시하고 더불어 목동과 양떼까지 보호하여 지키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 되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수입이 생기는 소망적인 날이라 큰 잔치를 베풀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넉넉히 대접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 인심을 후히 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삼상25:5-8)고 그의 부하 열명을 나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노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잠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25:10-11)"고 합니다. 그는 빈정대며 주인에게서 떠나 반란을 시도하여 갈라져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었다고 다윗을 빗대어 욕을 한 것입니다.

나발의 미련함은, 첫째로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사람인 다윗을 몰라본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껏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원리를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죄짓는 일에도 사용하고, 사치하고, 기본 내키는 대로 낭용하여 잘못 쓰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니다. 이같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나발이 했지만 결국 사용하는 것은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세 번째 미련함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 믿음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전혀 무지했습니다.

나발의 이런 미련함에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니다. 그리고는 사백 명 가량의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이백 명은 그 소유물 곁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도 실수였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동과 가족을 돌보아준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생각한 다윗은 나발이 자기를 목욕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로마서 12:19-20에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종으로부터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용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어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

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시라"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삼상25:14-17)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서둘러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과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등지 이백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나발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남편 나발이 너무나 서운하게 대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이름과 같이 미련한 자며, 자신이 신앙인적으로 그런 남편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자신이 가져온 이 음식으로 배불리고 구하는 용서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계획을 잡나이다. 곧 왕이 되실 텐데 왕좌에 오르게 되면 이런 미련한 사람 때문에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왕의 허물이 될까봐 이처럼 사정하고 비오니 미련한 자들을 죽일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나를 통해 이런 피 흘림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라도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너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삼상25:32-34)"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받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청을 허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에게로 가보니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하며 술에 크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기다려 술이 깬 후에 말을 했습니다.

신약적인 지혜는 반드시 해야 할 말도 상황과 때를 분별하고 상대를 잘 알아 상대가

영적인 유익함으로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12:36)"했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지켜가기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 안주고 시련에 들지 않게 하여 죄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상대의 행편 사정을 살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을 일러주고 깨우쳐 준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가일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신앙인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 나발이 다음날 아침, 술이 깨어 일어났을 때 전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그는 낙담하여 몹이 돌과 같이 되어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통한 아비가일의 신앙지혜를 본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반면 다윗을 알아보게 된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 맞추어 처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은 신앙인은 예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죽은 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회개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나발과 같이 없애버리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한 영적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의 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교회의 목자인 목사들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그 교회에 속한 양떼가 모두 하늘나라 가도록 하기 위하여 진액을 다하여 애쓰고 있다면 이런 목자의 뜻을 따라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 베스트 영어훈련원

### 제16기 훈련생 모집

-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훈련원
-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회화 훈련원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
- ▶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영어회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주생활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분

**LA 한인타운**

- ◆ 훈련기간 : 2011년 7월 25일(월)~2011년 10월 12일(수) 주3회 (월, 화, 수) 12주
- ◆ 훈련시간 : 오전 10:00~11:40 저녁 7:30~9:10
- ◆ 무료설명회 : 2011년 7월 25일 (월)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 ◆ 훈련장소 : LA 베스트 영어훈련원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6가+뉴험스)
- ◆ 등록비 :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 ◆ 접수 : 설명회 당일

**플러튼**

- ◆ 훈련기간 : 2011년 7월 26일(화)~2011년 10월 15일(토) 주3회 (A: 월, 화, 수 B: 목, 금, 토) 12주
- ◆ 훈련시간 : 오전 10:00~ 11:40 저녁 7:30~9:10
- ◆ 무료설명회 : 2011년 7월 23일 (토)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 ◆ 훈련장소 :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브룩헤르스트와 윌러드 사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동쪽으로 400M)
- ◆ 등록비 :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 ◆ 접수 : 설명회 당일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 뉴욕 한국일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뉴욕 맨해튼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가 직접 참석을 통해 확인 / LA 다양한 계층 훈련후 찬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수개월 해외 연수보다더 효과적인 곳!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논리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적 방식으로 대전환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중립반복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약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강사보다 학생이 더 많은 말을 한다.

**3년 과정을 3개월에 끝내는 베스트 훈련원의 원칙 9가지**

1. 분석하지 말고, 단순하게 트레이닝 하라.
2. 공부하지 말고, 훈련하라!
3. 책안권을 읽는다고 방식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4.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5. 모르는 것은 낯선 것일뿐, 낯을 익혀 익숙해져라!
6.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7.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8. 이할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끝없는 궁금증을 가져라!
9. 하늘엔 따지 검증할 수 없을... 사당식 영어를 하라!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허득하지은 영어훈련소(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 앨버트 몰러 “동성애자 치유, 세속적 접근하면 실패”

###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이자 해결책이라고 강조

동성애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온전한 해결책이며, 따라서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때는 다른 방법들보다 복음을 중심 삼아야 한다고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주장했다.

남침례신학교 총장 R. 앨버트 몰러 Jr. 박사는 최근 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세속적인 방법의 치료법들은 부분적인 변화만을 가능케 하므로, 동성

애자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죄를 깊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바꾸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며 세속적 치료 프로그램들 역시 죄인의 삶에 미미한 개선을 가져오는 것 외에 더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성적 지향과 그로 인한 행동 양식들은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몰러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인간의 삶에 전권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성애자들의 삶을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몰러 박사는 ‘동성애자 치유’란 책임에 기독교가 직면할 때 세속적 방법들을 부차적 수단으로만 삼아야지, 결코 복음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몰러 박사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미국의 한 기독교 상담 센터가 동성애를 병으로 간주해 치료하려 함으로써 동성애 혐오증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셸과 마커스 배크먼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지난 20여 년간 치유를 위해 찾아오는 동성애자들을 상담할 때 그들이 가진 우울증이나 불안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신의학적인 방법을 써왔다. 그러나 최근 동성애자를 가장하고 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고 간 동성애자 인권 단체

TWO(Truth Wins Outs)의 스태프 센터가 동성애 성향을 정신적 질환으로 취급했다고 비난했다.

몰러 박사는 “기독교는 동성애자 치유라는 주제에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성경은 동성애가 죄이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에 대한 강한 확신 안에서 동성애자 치유를 다루야 한다”고 말했다.



2011 남침례교(SBC) 샌트루스코스트지방회 미션컨퍼런스가 산호세 주님의침례교회(송춘섭 목사)에서 20일, 21일 양일간 열렸다.

순현정 기자

##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이 더 종교 중요시

### 세계인 대상 종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여론 조사 기관인 Ipsos MORI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24개국 1만 8천 명이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94%가, 기독교인이 다수인 나라에서는 66%가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지만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종교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의 94%가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 반면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종교인의 66%만이 동일한 답변을 했다.

무슬림 다수 국가의 응답자 중 61%는 자신의 종교가 구원과 해방과 낙원(paradise)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답변한 반면, 기독교인 다수 국가의 응답자 중 19%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선을 하는 중요한 동기가 종교인라는 질문에 무슬림 다수 국가의 응답자 중 61%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기독교인 다수 국가에서는 2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30%가 동일한 대답을 한 반면, 52%는 종교를 떠나 자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서 젊은이들도 종교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35세 이하 전체 응답자 중 73%가 종교는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설문 조사 대상 24개국의 전체 응답자 중 1/3이 자신과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나 지인을 갖고 있지 않

고 응답했다.

한편 Ipsos MORI의 벤 페이지(Ben Page) 회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종교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부 유럽 국민들은 종교를 정치와 분리하려 하고 있지만, 과거 유럽인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도로 현재의 세계인들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페이지 회장은 분석했다.

종교간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前)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Tony Blair)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받기며, 종교간 대화는 단지 흥미롭지만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 사회의 더 큰 단결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67호

## 남 얘기 아닌 '아동 납치',내 아이 어떻게?

### 뉴욕 브루클린서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으로 경종

레이비 크레츠키 군 사건 당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8살 소년인 크레츠키 군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뉴욕 브루클린 유대인 거주지역에서 길을 걷다 납치돼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 대부분 무고하게 죽은 아이에게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범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세상에 무서워서... 절대 혼자서는 못 걸어 다니게 해야지”, “8살 아이를 혼자 걸어가게 놔둔 데이캡이나 부모가 이해가 안 된다”, “8살짜리한테 여섯 블록은 좀 멀네요.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를 이해한다는 내용도 있다. “제가 브루클린에 살아봐서 알아요. 안전한 동네는 다 걸어다니요. 더군다나 유대인 밀집지역이니 어느 부모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어요...”, “8살이고 남자아이면 독립심이 생길 나이에요. 이날 처음 혼자 걸어서 집에 오기로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 라고...”라는 반응들이다.

얼마 전에는 하룻길에 집 앞에서 납치돼 18년간 감금된 채 납치범의 성노리개로 고통받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제이시 두가드(30) 사건이 알려져, 어린이 납치나 폭행, 실종은 바로 내 이웃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그렇다면 내 아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첫째, 우리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알아보자. 실종 및 학대아동 신고센터의 낸시 맥브라이드 디렉터는 “만일 당신의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고,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놀면서 그 집에 드나든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둘째, 아이들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알아야 한다. 아동 학대나 유괴는 낯선 사람이 아닌, 알고 지내는 이웃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부모는 반드시 아이들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담당 코치부터 선생님까지 세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은 누구와 함께 보내는지도 알아야 한다. 셋째, 현재 아이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최근 사진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신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부모 역시 아이들의 얼굴 전체를 포함한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아이들이 그룹으로 다니게 해라. 실종되거나 유괴된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혹은 학교 관련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다. 특별히 여름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혼자 돌아온다든가 때때로 오랫동안 밖에서 혼자 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능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니라고 가르쳐야 한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유괴 혹은 실종된 아이로 의심되는 경우가 장 먼저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지역 경찰에 알려야 한다.

맥브라이드 씨(실종 및 학대아동 신고센터 디렉터)는 “(실종된) 아이들은 대개 처음 3시간 안에 위험에 처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 나타나야 할 곳에 나타나지 않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거나, 차 안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는 지역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희 기자

## 이라크, 전쟁 후 8년여 만에 첫 교회 세워져

### 세계 각지의 헌금으로 건축 “평화의 메시지 보내는 사건”

이라크에 2003년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현지 기독교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미군 주둔 이래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반기독교 테러가 증가하면서 성직자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돼 왔으며, 이같은 위협 때문에 기독교 활동이 오랫동안 위축돼 왔다. 또한 2003년 당시 120만 명에서 현재 40만 명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 기독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국제사회로부터는 물론 현지 교계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8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

라크 땅에 세워져 바로 얼마 전 첫 예배를 드린 키르쿠크 주 마블로스시의 성바울교회는 세계 각지로부터 모인 헌금으로 건축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라크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를 이끌게 될 루이스 사코 신부는 첫 예배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화해는 이라크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안전이 보장된 나라로 만드는 길”이라며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이 예배에는 기독교인 뿐 아니라 지역 무슬림들도 참석했다.

한편 예배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 하산 토란 의원은 “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기독교인의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회가 세워진 데 대해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

를 이라크와 세계에 보내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라크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3%

정도로, 대부분이 이라크 전통 교회인 칼데아 정교회에 소속돼 있다.

순현정 기자



##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8월 1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li> <li>▶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li> <li>▶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li> <li>▶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li> <li>▶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li> <li>▶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li> <li>▶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li> <li>▶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li> <li>▶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li> </ul>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어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 당뇨, 고혈압 전문 한의원

전 세계에 알립니다. 당뇨, 고혈압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 싶은분은 빨리 예약하셔서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8/31/11 11시까지 전화예약 하는분에 한해서 각종 프로그램 60% Off 해 드림

## 이번주 강의: 약을 끊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디를 가도 당뇨, 고혈압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약을 거의 다 끊고도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된다는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데 Radio Interview에서...다 끊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믿기 힘듭니다. 등의 사례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약은 빠른증상 개선은 좋지만 장복하다보면 또 하나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약을 줄이거나 해방될수만 있다면 이것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이 좋은겁니다. 당뇨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다 수치가 정상인데도 무서운 합병증으로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 심장병, 뇌경색, 중풍으로 고생하다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합병증의 고통과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 지식의 무지에서 탈피해야되고 무분별한 음식섭취, 잘못된 지식을 바로 이해해야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자연의 원인치료를 하게되면 놀라운 내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놀랍고도 경이로와하는 특별기획, 봉사를 통해서 소중하고도 뜻깊은 만남, 놀라운 치료의 기회시간을 갖으세요. 믿어지지 않는 높은이론, 이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는 자연진료방법,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시술, 수많은 임상사례, 그냥 세월가다 망막증, 다리괴사, 신장병, 절단등의 불가피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몸, 건강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과 희생속에 얻은일은 기쁘겁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잘못과 화를내고 실망을 하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생각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슬퍼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장기도 약해지고 아파합니다. 노력하고 사랑하고 근면하고 훈련된 절제의 생활, 이해와 인내와 바른관계와 생활, 올바른 모습, 약속된 능력, 자기의 정체성 또한 준비된 생활이 건강도 또한 바르게 되는것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방진단을 통해서 알아보고 싫어하는것을 좋아할수있는 부정속에 긍정과 가르침을 알고 내몸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내몸은 스스로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더이상 실수했던것을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발전속에 새로운 것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새롭게 원하는 평안의 마음과 형태로 다가옵니다. 두려워말고 걱정하지말고 자연의 한방요법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선택을 알고 우리몸을 기쁘고도 기쁘게...건강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 놀라운 한방의술로 고통과 불편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사와 신뢰와 유익한 건강이 되도록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연구하는 한의원으로 서 있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힘든 질병에서 벗어나게끔 믿기 힘든 획기적 증상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너무나도 좋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 세계속의 한의원

### 각종 프로그램 소개

1. 강심장 청소혈관 프로그램 (심장을 건강하게)
2. 복부비만 관리 프로그램 (날씬하고 아름답게)
3. 간장해독, 맑은눈 증상개선 프로그램 (맑은 눈이 필요)
4. 오십견, 요통, Disk, 좌골신경통 프로그램 (빠른 증상개선)
5. 암예방 면역강화개선 프로그램 (면역력 증강개선)
6. 건강한 폐, 알러지, 기침, 해수개선 프로그램 (폐를 강하게)
7. 요실금 개선 방광염개선 프로그램 (여성이 꼭 필요)
8. 화끈거리는 갱년기 증후군, 골다공증개선 프로그램 (자연적으로)
9. 획기적인 장수건강개선 프로그램 (몸을 보하면서 편하게)
10. 어린이 성장탕, 총명탕, 아토피개선 프로그램(너무 좋음)
11. 자연미인 프로그램 (아름다운 피부, 가슴관리)



<b>1예 - 당뇨병</b> 당뇨병으로 6달정도 복용하던 중 청한의원에서 3개월 치료후 다 알약끊고 공복수치가 120정도 정상수치로 되었음. 본인은 너무 감사해 함	<b>2예 - 당뇨병</b> 당뇨병으로 한쪽눈이 안보이고 심혈관이 막혀 잠을 잘 수가 없고 다리가 부어서 걷기가 힘들었음. 5개월 치료후 당이 400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110 정도 알약 다 끊고 이루 말할수 없이 감사해 함.	<b>3예 - 고혈압</b>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도 190/110정도 3개월 치료후 약 다 끊고 수치가 121/80 정도 나옴. 본인도 기적과도 같다고 너무나 고마워 함.	<b>4예 - 흉통</b> 원인 모를 가슴통증으로 25년간 온갖치료 무효과 여기서 한약 복용후 1개월 후 모든증상 사라짐 남편 할 어떻게 이런일이 이세상에...	<b>5예 - 대상포진</b> 대상포진으로 너무나 따갑고 가렵고 힘들어했음 한약 복용후 1주일 정도후에 거의 증상이 사라졌음 너무나 감사해 함.
<b>6예 - 요통</b> 고령의 할머니 허리통증으로 구부리지도 못하고 괴로움 호소, 특수침 맞은후 15분후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하면서 원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b>7예 - 불임증</b> 15년 환자가 찾아와서 임신이 안됐다가 한약 복용후 아기 낳아서 너무나 감사해 함. 이때 한의사 보람을 느낌	<b>8예 - 현기증</b> 3년간 너무나 어지러워 앞도 안보일 정도로 한약 복용후 1주일 정도후에 그 증상이 사라짐. 정말로 고맙고 또 고마워 함.	<b>9예 - 성인병</b> 할아버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성지방으로 수년간 약 복용 3개월 치료후 약을 다 끊었음. 병원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함.	<b>10예 - 피부병</b> 3개월간 피부병으로 온갖치료 무효과 본원에서 치료후 그 무시무시 살벌한 피부가 뽀얗게 나타나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에 감탄.
<b>11예 - 부인병</b> 한 여성이 찾아와서 자궁수술 해야 된다고 걱정, 한약 2재 복용후 병원검사에서 모든것이 정상, 수술 안해도 된다고 판정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 함.	<b>12예 - 전립선</b> 전립선으로 2번이나 수술후 피가 소변에서 철철,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꼬박 못잠. 여기서 한약먹고 침맞고 피가 뚝 멈춤. 참으로 한약 대단하구나 스스로 감동 또 감동...	<b>13예 - 성장부진</b> 어린아이가 밥도 안먹고 자라지도 않고 너무나 걱정 여기서 한약 복용후 너무나 밥을 많이 먹고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감사에 또 감사..	<b>14예 - 좌골신경통</b> 너무나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엉덩이가 뽀개지고 다리가 저려서 피 말리고 이가 갈린다고 별치료 다 해봤지만 무효과, 여기서 한약먹고 침맞고 정말 믿을 수 없이 그 고통 사라지다니...	<b>15예 - 치질</b> 밥 못먹고 변비, 설사, 치질 심장이 빠근 죽을것 같은 이 증상 사라지니 세상이 다시금 고마워짐

청한의원 714 636 1412 (24hrs) 714 349 7995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사면 1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100% 순수한 천연 생약으로 근본적으로 혈당조절을 도와주며 혈액순환과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인체의 자생능력을 도와 스스로 인체가 균형을 잡아 증상개선을 시킴. 특히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갑자기 기운이 떨어져 힘든증상, 눈이 침침하고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손발이 저릴때 적극 추천합니다. 당뇨병을 오랜시간 약을 복용하면서도 합병증으로 심장병, 뇌경색, 눈이 잘 안보임, 다리괴사절단,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 신경염등으로 무척 고생하는데 혈관이 경화되고 노화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줄이거나 해방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운동으로 무척 노력하지만 그리 쉽지가 않는데 당뇨신선단은 자주 배고픈 증상, 저혈당증상을 도와주고 체중조절 및 복부 비만을 줄여주고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면 의사선생과 상의하에 서서히 알약을 줄여주며 많은 경우에 당뇨초기나 중기의 경우에 궁극적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다 벗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아십니까?** 약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정상혈당을 유지하면 그 무서운 합병증에서 미래의 두려움, 걱정, Stress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많은 당뇨환자들이 대책없이 약에만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서 눈이 안보이고 신장투석하고 다리절단, 심장병, 뇌졸중으로 무서운 앞날을 기다리지 말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에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복용사례> LA북쪽 Valley에 사는 Mr. Lee씨는 당뇨로 15년동안 알약을 매일 4알을 복용하면서 눈도 잘 안보이고 이제는 합병증이 온다고 무척 걱정했는데 신선단 복용후 거의 알약을 안 먹고도 아침공복 혈당이 120정도 ± 되서 정말 믿을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다 말하면서 특히 병원에서서는 이제는 인술린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까 의사 선생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고 같이 축하해주었다고 말했고 또한 체중도 10LB 정도 빠지고 몸도 가볍고 기운도 최고의 상태라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특히 의사선생이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 있나 했는데 주위에 친구 형제중에 알약도 3알 정도인데도 레이저수술 몇번후에 눈이 잘 안보이는분들이 있는데 하루 빨리 권해주고 싶고 아픔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삶을 위해 행복하길 바란다 말씀합니다.

Diabetes damages the endothelial of the arteries, choking off blood flow to the hear(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뇨병은 혈관 내역을 손상시키고 심장의 혈관흐름을 막히게 된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합병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그 무섭고도 무서운 시간에서 자유롭게 못하고 슬프고도 슬픈 후회가 되는 시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정말 그 어디서도 보기도문 당뇨신선단과 함께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가지시고 노력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http://www.shinsundan.com) 을 참조 / 24시간 주문 전화 714.636.1412 / 대리점 하실분, 돈 버실분 전화요망



# 브라운 CA 주지사 동성애 공립교육에 결국 서명 수정교회 원로들 “술러 목사의 성과, 자녀들이 무너뜨려”



동성애 퍼레이드에서 가슴성형을 한 트랜스젠더가 손을 흔들고 있다.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교실 문을 열어 주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도 부모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다면, 이제 못 가게 할 때"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사회과학 교과서와 수업에서 동성애자는 물론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재나 교실에서의 언급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인 사회과학 교과목에 포함시키기에 이를 배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게 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주의회에서 법안은 49대 25로 통과됐다. 찬성표는 단 한 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동성애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세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같은 우려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희진 기자

## 현 사태에 입장 표명하고 교단 개입 촉구



2010년 11월 아버지인 로버트 H. 술러 목사로부터 담임목사직에 임명 받고 있는 딸 쉐라 술러 콜맨 목사와 그 남편인 짐 콜맨 목사

최근 재정적 어려움에 이어 구성원들간의 갈등에 봉착한 미국 수정교회에서, 원로 교인들이 마침내 이 문제에 교단(RCA:미국 개혁교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정교회 원로 교인들은 교단이 나서서 현재 지도자들에게 갈등을 종결짓고 교회 문제를 돌아보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교회 안에 족벌주의가 팽배하고 창립 정신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인들뿐 아니라 교회의 설교 방송인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 시청자들과 교회 지지자 등 4백여명이 현재까지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동참자가 총 1천 명을 넘으면 교단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수정교회는 지난 2006년 창립자인 로버트 H. 술러 목사(당시 79세)가 아들인 로버트 A. 술러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준 것을 포함, 주요 사역들을 맡들과 사위들에게 맡긴 이후부터 교회 리더십을 놓고 부자간, 남매간의 불화가 계속되어 왔다. 2008년 로버트 A. 목사가 아버지와 사역에 대한 견해차로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뒤, 2010년 딸인 쉐라 술러 콜맨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잇게 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갈등은 더욱 심화돼, 콜맨 목사는 아버지와는 물론 로버트 A. 목사외도 교회 운영 문제로 자주 충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로버트 A. 목사가 이사회에서 제명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로버트 H. 술러 목사 역시 이사회에서 투표 권한을 제한당했으며, 현지 언론들은 이같은 조치가 두 사람 모두 이사회에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인물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이사회는 술러 목사의 딸들과 사위들을 빼고는 모두가 교회에 고용된 이들로 채워져 있다.

청원서는 이같은 문제 역시 지적하며 "우리는 가족 관계에 있거나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들이 없는 '교회로부터 진정으로 독립된 이사회'를 원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원로 교인들은 교회 리더십이 5년 여간 지속돼 온 싸움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파산과 교회의 정체성 변질 등의 산재한 문

제들을 돌아봐 줄 것들을 촉구했다. 원로 교인 중 한 명인 짐 맥도널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은 술러 가족들이 보다 투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막대한 금액이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그동안 수정교회와 고수해 온 전통 음악 대신 찬양 음악을 예배에 사용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 등 당면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술러 목사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쌓아 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낸 맥도널드는, 원로 교인들이 작년 쉐라 술러 콜맨 목사와 면담을 가진 후에도 교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맥도널드는 "교단은 그동안 회원인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다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우리 또한 교단에 조인을 구하지 않아 왔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최근 로버트 H. 술러 목사를 사실상 이사회에서 제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 교단의 조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수정교회는 로버트 H. 술러 목사에 의해 1955년 자동차 극장에서 시작돼 1980년 총 1천8백만 달러가 들어간 현재의 예배당을 완공했다. 수정교회 예배당은 우리 백년과 세계 최대 오르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많은 시청자를 갖고 있는 '능력의 시간'이 방송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술러 목사의 은퇴 이후 이어진 갈등으로 교세 감소와 재정 악화를 겪게 된 수정교회는 작년 10월 파산 신청을 했으며, 지난 5월에는 채무 지불을 위해 예배당을 매각한 후 15년간 리스 방식으로 임대한다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수정교회의 총 750만 달러 가량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술러 목사의 둘째 딸 부부가 감독해 온 성탄절 행사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산 신청 이후 약 1년 동안 수정교회는 140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능력의 시간' 방송을 반으로 줄였고,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대규모 행사들을 모두 취소했다.

손현정 기자

## 캘리포니아 주 2015년 교과서 개편에 반영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민주당)은 15일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역사에 관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할 것을 명시했다.

브라운은 "이 법안은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이며 모든 배경,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공적이 미국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를 위

한 진일보이다"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이미 공립학교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멕시코인 아메리칸, 아시아인 아메리칸과 다른 소수 그룹들에 대해서도 가르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브라운 의원은 이번 서명은 동성애자 등 성정체성에 있어 소수자들도 인종적 소수자와 같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와 단체들은 "브라운 주지사가 동성애 운동가들에게

## 나이 들어가는 영국 교회, 20년 뒤면 '자연사' 우려

교인 수는 늘지 않는데 원래 있던 교인들은 자꾸만 나이가 들어간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영국 교회가 오늘날 안고 있는 고민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의 걱정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성공회가 최근 소속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1세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현지 일간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지난 40년간 교회에 나오는 성인 교인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미성년 교인 수는 5분의 4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영국 교회에 현 세대의 교인들이 모두 사망한 20~30년 뒤에는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어넣고 있다.

무엇보다 매우 느리고도 쉽사리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어 온 탓에 큰 위기로 인식되지 못했던 교인들의 고령화 문제를 영국 교회가 보다 심각히 바라보게 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 지도자인 안드레아스 위트럼 스미스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회사가 사실은 몰락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을 볼 때가 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며 "인구의 '시한폭탄'이 교회에 분명한 위기라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지도자인 패트릭 리치먼드는 "고령화는 교단에 불어닥친 최악의 폭풍"이라며 "20년 후 교회가 더 이상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그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요크에서 열린 총회(General Synod)에서 발표했다. 총회에서는 교단이 안고 있는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우선은 교인 수를 늘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주를 이뤘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또 젊은 세대를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방안과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손현정 기자

## 美 등록금 상승률 상위 10개 대학, 6개가 캘리포니아에

미국에서도 대학 등록금 인상폭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연방교육부가 교육부 웹사이트(collegecost.ed.gov/index.aspx)를 통해 최근(2007-08년도에서 2009-10년도) 국공립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폭을 공개했다.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샌디에고주립대학(임페리얼 벨리 캠퍼스) 등록금이 예년에 비해 47% 올라 전국 상승률 순위 3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이스트 베이 캠퍼스가 46%, 스테니슬라우스 캠퍼스가 45%, 치코 캠퍼스가 45%로 각각 5

위와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많이 오른 상위 10개 대학 중 6개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다른 지역 대학보다 등록금 자체가 비싼 데다 상승폭 역시 커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노던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경우 전년 대비 51% 올라, 1,668달러에서 2,522달러로 854달러가 증가했으나, 46% 상승으로 3위를 차지한 샌디에고주립대학(임페리얼 벨리 캠퍼스)은 2,906달러에서 4,260달러로 올라

1,354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정부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인해 캠퍼스내 계열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12% 인상한 데 이어 UC 계열의 학교들도 9.6% 인상한다. UC는 이미 2011-2012학년도 등록금을 8%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인상한 것이기에 전체 인상된 등록금은 이전 대비 18.3%나 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학기 등록금에 비해 이번 학기 등록금 인상이 너무도 급하게 이뤄졌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현희 기자

###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1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 7월 16일(토) / 12월 17일(토) 오전10시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후원을 도와주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생명나무교회, 풍성한교회, 한솔보험,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한의원, Allstar, Precision, 재미 남가주 황해도 도민회, 최진욱변호사그룹,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351-0955**

## 차압·경매·퇴거 방지

**숏세일(Short Sale)** 숏세일 실패하셨으나, 꼭 집을 팔기 원하시는 분  
 집을 판 뒤에 자신의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1년 이상 더 거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

**융자 조정을 하고 있었으나, 진전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 융자 조정이 실패한 후, 차압(옥션, 경매, Foreclosure) 날짜가 임박하신 분 가운데, 자신의 집에서 1년 이상 더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연락을 주시는 시점에 따라, 3년 이상 연장 가능)

**Deficiency Judgment : 숏 세일이나 포어클로저(경매)를 할 경우에, 2차 혹은 3차 융자 은행이, 차액의 손실을 근거로 본인의 다른 주택, 비즈니스, 혹은 월급에 대한 차입을 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숏세일이나 포어클로저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차입(경매, 옥션, Foreclosure)이 이미 끝나고 강제 퇴거(Eviction)가 임박하신 분이라도, 퇴거시한을 연장해 드리고, 자신의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더 거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투자용 주택(세컨 홈), 2-4 unit House, APT, 상업용 건물(오피스 빌딩, 상가 건물...) 모두 해당됩니다.

파산(Bankruptcy) 불필요

크레딧 카드(Credit Card) 빚 삭감 Up To 85%

APT 융자 : 25% Down 구입(외국인 포함, 유학생, 방문객...) 재융자+캐쉬 아웃 75%까지 Tax 서류 불필요

**Zebro Inc / WP Lending Inc**

한인 담당 : 폴 리  
**Tel. 213-248-9297**

Fax : 253-563-0411  
 E-mail : www.zebronet.com  
 3400 W. 6th Street, #200, LA, CA 90020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어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 금에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어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몬튼 471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40 주일학교 오전 10:45, 오후 12:40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www.krc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30(토)  
 1818 S. Western Ave., suit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주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금란교회 “올해 말까지 사태 해결 안 되면 독립연회 발족”

성명서 발표... “중대 결심 하고자 한다”

감리교 사태에 즈음한 성명서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소속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금란교회가 ‘감리교 사태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 올해 말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독립연회’를 발족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금란교회는 성명서에서 “교단 내 문제는 교단법인 교리와장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일부 기독교인들이 사회법으로 고발을 자행해 오늘날 이런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따라서 우리 금란교회는 감리교 사태(본부 및 감독회장 간)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 요한 웨슬레의 신앙 정신에 입각한 순수 복음적인 독립연회를 새로 발족하는 등 중대 결심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연회에 대해 “교단 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많은 교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 재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우리 감리교단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7월 1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동사무사 김홍도 감독, 담임목사 김점민 목사

교역자 일동, 시무장으로 일동, 원로장로 일동, 남산교회 총회원 일동, 여성교회 총회원 일동

이들은 독립연회에 대해 “교단 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많은 교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 재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우리 감리교단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7월 1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동사무사 김홍도 감독, 담임목사 김점민 목사

교역자 일동, 시무장으로 일동, 원로장로 일동, 남산교회 총회원 일동, 여성교회 총회원 일동

## 성명서 전문

2008년 9월 25일 제28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이후 감독회장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우리 감리교단이 온 국민과 160만 감리교인들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당하고 교단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성도들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 내의 문제는 교단법인 ‘교리와장정’

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일부 기독교인들이 ‘사회법’으로 고발을 자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금란교회는 감리교 사태(본부 및 감독회장 간)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 요한 웨슬레의 신앙 정신에 입각한 순수 복음적인 독립연회를 새로 발족하는 등 중대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교단 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으로 많은 교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 재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우리 감리교단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7월 1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동사무사 김홍도 감독, 담임목사 김점민 목사

교역자 일동, 시무장으로 일동, 원로장로 일동, 남산교회 총회원 일동, 여성교회 총회원 일동



대장정에 참여하는 임나연 청년(가운데)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시종 울먹였다. ©이대용 기자

# “예수님 오해하게 했던 것 참회하며 한 발짝씩...”

국토 기도대장정 ‘We Do Walk’ 떠나는 청년들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슴아파하는 청년·대학생들이 한 달여 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개와 결단할 것을 전 국민들에게 표현한다. 오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25일간 부산(해남)부터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2011 국토 기도대장정 ‘We Do Walk’를 통해서다.

이들은 14일 오전 서울 신촌 아르떼교회(담임 이규 목사)에서 이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규 목사와 김상민 대표(한국대학생리더십센터)를 비롯, 대장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토 기도대장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52명으로, 한 아이가 드린 ‘오(5)병이(2)어’를 상징한다.

과 대전, 서울과 임진각에서는 각각 집회 ‘We Have The Dream 오직 예수’가 예정돼 있다. 대장정에 동참하는 임나연 청년(이화여대)은 “몇 년간 신촌지역에서 기도모임을 가지면서, 캠퍼스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저 자신이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이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됐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규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난 1970-80년대 경이적인 성장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경이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회개를 보여주시지 못해 청년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좋은 목사, 이전에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하게 한 점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들에 대한 진짜 사과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실 수많은 청년들이 진정한 진리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교회가 이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오는 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까지 동북아 리더십의 거대한 교체가어서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대장정 후에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소외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뜻있는 젊은이들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목회자나 교육자, 문화예술인 또는 일반 직장인들의 특별 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문의: 위두웁미니스트리 (club.cyworld.com/wedowalk, 010-8411-4454)

이대용 기자

# 대학생들, 지하철 타고 자살예방 캠페인

청량리역, 왕십리역, 선릉역 등지에서

대학생 생명사랑 활동가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하철에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였다.

15일과 16일 양일간 생명존중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28개 대학의 학생 40여명은 한국생명전화 주최로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선릉역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5일 청량리와 왕십리 사이 구간은 지하철을 직접 탑승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댄스뮤지컬 퍼포먼스 등 ‘플래시몹’적 성격을 띠고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 촉발을 유도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2.38배 증가했다. 2009년에는 15,413명이 자살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42명(1분당 34명) 꼴이다. 자살자 증가 추

이는 주요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자살은 지난 1999년 사망원인 중 7위에 불과했으나, 10년만인 2009년 4위로 올랐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 자살 사망률 1위, 자살 사망률 증가속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10-3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젊은이들의 자살 문제는 심각하다.

이대용 기자



퍼포먼스를 만들어 캠페인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모습 ©생명전화 제공

# “국악으로 복음 전파” ... 국악찬양 가수협회 창립

초대 이사장에 서도소리 명창 이문주 목사

국악찬양 사역자 30여 명이 모여 14일 인천 수산동 오삼농원에서 ‘한국 국악찬양 가수협회’(이하 국악찬양협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국악찬양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앞으로 국악찬양인들의 권익보호와 한

국교회 국악찬양을 보급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또 국악찬양인 양성은 물론 선교무용과 기독교 사물놀이 등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국악찬양 경연대회도 열기로 했다. 협회에는 이진우 이신덕 목사, 최진이 박영순 전도사, 장혜경 강수경 교수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한편, 협회 초대 이

사장에는 서도소리 명창인 이문주(55, 벨벳군인교회) 목사가 추대됐다. 이 이사장은 ‘성경산타령’ ‘할렐루야 샹타디아’ 등 50여 곡을 작곡, 지금까지 국악찬양 보급에 힘써왔다. 지난 2009년에는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서도선소리산타령 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 BiF 여름 맞이 SALE

3개월간 동시

**HOT**

침대검용 소파

\$429 → \$299

**HOT**

시몬스 매트리스 특별세일

Queen Size Mattress Only \$699 → \$399

**HOT**

메모리폼 매트리스 특가세일!!

Queen \$399 King \$499 Full \$299

**HOT**

기존의 신발장보다 더 크고 튼튼합니다.

편리한 신발장 \$99

**HOT**

사무용 의자 \$89

**HOT**

사무용 의자 \$109

**HOT**

이태리 디자인의 밀라노 모달리 책장

함께있는 공간의 아름다움 \$299 → \$89

**HOT**

Queen Size Bed only

보루네오 이오르 예코 침대 \$799 → \$499

**HOT**

Queen Size Bed only

성공 최고영인 보루네오 침대 \$399

**HOT**

고급스런 디자인의 서랍장

5단 서랍장 (B015) Reg. \$355 → \$189

**HOT**

DR7500 Fabric \$289

**HOT**

DR250 Fabric \$249

인체공학으로 만든 의자과학 듀오백 편안함의 경쟁력을 느껴 보세요

**BiF 보루네오 가구**

Los Angeles 매장  
965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323) 731-7777

몬테벨로 아울렛  
717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323) 888-0215

오렌지카운티 매장  
14190 Beach Blvd.  
Westminster, CA 92683  
(714) 379-2800



# 13년 후원, 방글라데시의 딸 대학 보낸 '키다리 아줌마'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아끼니 아이 인생이...”

경북 의회에서 속기사로 일하는 권미선(40) 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아이의 사진을 항상 바라본다.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이 아이 때문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택시 한 번 덜 타게 된다.

사진 속의 아이는 권 씨가 13년 동안 결연을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키운 딸 타니아다. 처음 아동결연카드 속 사진을 통해 만난 타니아는 다섯 살의 어린 소녀였는데, 세월이 흘러 권 씨가 두 명의 아들을 둔 마흔 살의 엄마가 되는 사이에 타니아도 무럭무럭 자라 올해 대학생이 됐다.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한창 배울 나이에 학교 대신 일터로 향하는 아동 노동인구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 만약 1998년 타니아와 권미선 씨가 만나지 않았다면 결국 이 작은 소녀도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자신이 낳은 아이도 버리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에 13년간 '키다리 아줌마'가 되어 멀리 방글라데시의 아이를 후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권 씨는 자신의 두 아들보다 타니아를 먼저 대학에 입학시킨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방글라데시의 현실을 알기에 딸의 대학 진학이 더욱 감격스러운 것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딸을 위해 13년 동

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총 150여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보낸 권 씨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몇 만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방글라데시의 딸 타니아는 그 돈이면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니고, 끼니를 해결하며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지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껴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고 전했다.

권 씨가 처음 후원을 결심하게 된 것은 1998년 10월, 우연히 방글라데시의 굶주린 아이들에 대한 사연을 접하고 굿네이버스에 결연 신청을 하게 됐다. 권 씨는 “집으로 배달돼 온 아동결연카드에서 타니아의 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뺨짝 깎은 짝은 머리, 커다란 두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진 속 타니아의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라며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십여 년 전, 어린 타니아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권 씨가 했던 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가진 것을 아주 조금 나누는 것.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타니아가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꾸준히 돕겠다는 소박한 마음이었다.

권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매년 굿네이버스에서 보내주는 아동성장발달보고서를 볼 때마다 타니아의 몸무게를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키에 비해 몸무게가 좀 처럼 늘지 않아 걱정이었지만, 해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키와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보다 일을 해야 하는 방글라데시에서 학교를 꾸준히 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동성장발달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지금까지 받은 타니아의 사진들을 모두 꺼내보며 ‘별써 이만큼 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한국의 두 아들에 비해 어렵게 지낼 타니아가 못내 마음에 걸리곤 했어요”라고 말했다.

굿네이버스에서 보내 온 2009년 성장발달보고서에는 “아동은 활발하고 똑똑한 학생으로 지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개근상도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2011년 보고서에는 “타니아는 학업성적이 뛰어나며 국어(힌디어)를 좋아합니다”라고 기록돼 있다.

전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한국의 엄마인 지라 “딸이 공부를 잘 한다”는 말에 기분이 으스스하지만 그러면서도 권 씨는 “타니



타니아의 아동성장발달보고서를 들고 있는 권미선 씨 모습

아가 그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고마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권 씨는 “어느 날, 굿네이버스로 부터 타니아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13년 전 후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만약 그 때 내가 이 아이 돕는 일을 미루거나 사는 것에 바빠서 후원을 잊었다면 사랑하는 딸 타니아에게 오늘의 이런 기적은 찾아오지 못했겠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한 기적을 만들어 낸 내 딸 타니아가 자랑스럽습니다”라며 감격의 마음을 전했다.

방글라데시의 대학 진학률은 20%이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여성이 대학을 가는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 13년 전 시작된 권 씨의 작은 나눔은 가난으로 꿈꿀 수 없었던 방글라데시 소녀에게 ‘기적’을 선물했다.

또한 권 씨는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생각에 그치지 말자. 지금 당장 시작하자.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해보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데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었어요. 타니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가득 채우는 ‘충만한 무언가’가 있어요. 타니아와 같은 저개발국의 아이들을 돕는데 한 달 3만원의 후원금이면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모을 수 있는 그 적은 후원금으로 아이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씨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타니아가 졸업 후에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구촌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이순상 목사)는 14일 아침 6시 30분 서산시 읍내동 수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제63회 조찬기도회 겸 2011 서산국제성시화대회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백승익 목사, 서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순상 목사, 서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 강갑수 목사, 서산홀리클럽 회장 박상길 장로, 조규선 전 서산시장, 김환성 서산시의회 의장, 강춘식 서산시생활체육회장, 서산신문 백종석 사장, 유상동 전 서산교육장, 박상무 도의원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국 목사(실무본부장, 서산중부장으로 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이종덕 목사(실무본부장, 부은감리교회)의 기도, 대산제일교회 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김철영 목사가 ‘성시화의 꿈, 서산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설교 겸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의 전체적인 기쁨을 소개했다.

김철영 목사는 “2004년 포항에서 세계대회가 개최됐고, 2005년 LA 성시화대회, 2008년 150여 소수민족이 참여한 LA 다민족 성시화대회, 2009년 인천국제성시축전,

## 2011 서산국제성시화대회 설명회 개최



2011 서산국제성시화대회 설명회 참석자들 ©성시화운동본부 제공

2010년 과테말라국제성시화대회에 이어 올해는 서산에서 국제성시화대회가 열리게 됐다”고 소개하고 “인구 16만 명의 소도시에서 200여 교회가 힘을 모아 국제성시화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김 목사는 “서산국제성시화대회를 통해 전세계 성시화 지도자들이 서산에 와서 성시화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175개국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모든 도시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세계성시화대회는 저녁집회, 교

육포럼, 가정사역포럼, 환경포럼, 성시목회 전략 포럼, 세계성시화지도자전략회의의 다양한 포럼이 진행되고, 서산문화유산답사, 서산사랑의걷기대회, 세계기독교박물관과 공동으로 성서사물전시회, 기독교미술전시회, 전도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크리스천은 물론 서산 시민들에게 격조 높은 기독교문화의 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서산시 교회를 대상으로 4영리 전도훈련과 전도실천을 한다.

상임대회장을 맡고 있는 백승익 목사는 “2011 서산국제성시화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남성시화운동본부 16개 시군 본부장, 사무국장 설명회를 가졌고, 오늘 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 주최로 설명회를 열었다. 앞으로 충남 16개 시군 순회현신예배 등을 통해 서산국제성시화대회에 대한 충남 지역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충남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6월 24일 충남 16개 시군 본부장, 사무국장 대상으로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직위원장 이순상 목사도 “우리 서산에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것은 서산국제성시화대회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서산의 200교회가 힘을 모아 성공적 개최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목사는 특히 “현재 서산시 복음화율은 19퍼센트인데, 충남 전체는 20퍼센트이다. 이번 서산국제성시화대회를 통해 복음화율 20퍼센트를 넘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태진 기자

#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진 무료! T213-380-0853

## 경산한의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박종길 칼럼

#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박종길  
얼바인 은누리교회 목사

인생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다 보면 지나가는 것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형편에서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내용이든 이런 사건이나 풍랑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을 쓴 시편 기자도 극심한 좌절과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죽음의 슬픔과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든 시편 116편의 고백과 같은 심정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음과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이나를 얻어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던 그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시 116:3-4, 우리말 성경)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눈물과 아픔도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무한한 사랑의 교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

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중주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에 두신 하나님은 죽음의 슬픔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고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116편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시 116:12-14, 우리말 성경)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지난 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 않습니까? 아는 것 말고도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그 은혜를 붙잡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치신 분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시편 116편과 같이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마음 안에 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김세환 칼럼



김세환  
LA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

소위, '주입식 교육'과 '사지선다형 찍기 시험'으로만 대학까지 진학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대부분 '사고력 마비'와 '창의력 부족' 그리고 '절대 의존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정해진 교과서로 암기 위주의 반복적 학습을 받아 온 우리들의 대학에 가면서 직면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는 '사고'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생소한 '학습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유식을 먹던 아기가 갑자기 딱딱한 누룽지를 먹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기존의 학습방법을 다 뒤집어야 하는 혹독한 혼란기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던 우리들을 찾아 온 생소한 젊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르트르', '카프카', '카뎀', '생텍쥐페리', 그리고 '막심 고리키' 같은 새로운 가치 창조를 부르짖는 '저항 문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만성화된 바이올린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긴급 처방된 '강력 항생제'와도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가장 큰 위상은 언제나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특히, 그의 '낙타 이론'은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강한 매력을 주었습니다. 니체는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배속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차게 되면, 현재의 역동적인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과거 기억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

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낙타가 죽어야 사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니체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의 획기적인 생각은 두려운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마음의 빗장을 거둘 수 있는 대단한 용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한국에서의 과거'를 잊는 것이었습니

# 낙타 죽이기

상 '새로운 것', '낯선 것' 그리고 '불편한 것'으로만 경험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옛 것'만 이야기합니다. 권태스럽습니다!

이들은 '사막'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모래밭에서 습관적으로 짐을 나르는 '낙타들'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에게 부과된 '짐'을 운반할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통과 체제가 부여해 준 '과거의 가치관'을 신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쉬는 시간에도 그늘에 앉아 이미 먹은 과거의 음식을 되새김질 할 뿐입니다. 낙타에게 변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우리 안에 잠자는 '사자'를 깨우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되어야만 무거운 짐을 털고 미래를 향해 주체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사나운 사자의 등에 짐을 얹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자를 올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마음껏 포효할 수 있어야 인생

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낙타가 아니다!' 켄 사스 위치타에서 첫 목회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로 올 때도 다시 한번 내 안의 낙타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려고 태평양을 건너 시골뜨기 낙타가 아니다!' 이제 우리 LA 연합감리교회를 섬긴지 5년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내 안에 낙타와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낙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를 짊어지고 있는 낙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두 갈래의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행동 양식과 전통에 매여 되새김질만 하는 낙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사자가 될 것인가? 힘들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결단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뫼'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빌 3:13)

남성수 칼럼



남성수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목사

일전에, 경제학자 신영복 선생께서 서예를 배우면서 서예는 조화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글자를 쓰다가 잘못되면 서예의 특성상 고칠 수 없기에 다음 글자를 통해서 그 실수를 보완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획을 쓰다가 좀 넘어지면 다른 획을 세워서 그 획에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동안, 잘못된 한 획 한 획이 모여 온전한 한 글자가 된다는 것이다. 글을 쓰다가 한 행이 잘못되면 다음 행으로 보충하고, 한 연이 잘못되면 다음 연에서 바로 잡으면서 한편의 아름다운 글이 만들어지는 것이 서예의 맛이라고 한다. 부분 부분이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보다 이렇게 실수와 실수, 거기에 대한 보수와 보충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글은 훨씬 정감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서예의 조화가 꼭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은 저 천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위해 이 땅을 사명자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시켜야 할 인생의 사명들이 있다. 이 사명은 마치 종이 위에 한자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깨달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그 처절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

# 서예의 조화

한자 정성된 글씨를 써내려 가는 서예의 과정과 비슷하다. 이때 일어난 실수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망치거나 중단해야 할 결립돌이 아니라, 다시금 보충되고 보충되어 아름다운 사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디딤돌 곧 조화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실수를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사명의 현장이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을 때도 있다. 때로는 그 실수를 보충하기 위해 인생의 깊은 고뇌 가운데 홀로 그 문제와 씨름해야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보충하며 보충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지나온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어느덧 굴곡진 내 인생의 구비구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작품이

을 잊지 말라고 되치고 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일어났던 실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의 삶에는 결코 울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한 우리의 눈물과 희생은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의 의식이다.



##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합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3010 Wilshire Blvd #208, LA CA 90010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안인권 칼럼



안 인권  
새소망교회 목사

인생은 각자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이지만 혼자 살 수도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룩펠러의 사업 성공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사람을 잘만났기 때문입니다. 룩펠러는 많은 사람을 사귀지는 않았지만 한번 믿은 사람에게는 전폭적인 신뢰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는 의심하면서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중을 기했고 일단 채용한 뒤에는 과감하게 일을 맡겼습니다.

룩펠러가 석유사업으로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광산 사업의 실패 때문입니다. 광산에 손을 댔다가 기사화성한 후 석유사업에 올인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많은 사업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석유사업에 대한 투철한 사업감과 각오와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 다. 석유사업으로 세계를 제패할 꿈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같이 일할 사람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좋은 사람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로 함께 하게 된 사람이 평생 동지로서 지내게 된 헨리 M. 플레글러였습니다.

플레글러는 룩펠러보다 거의 10년이나 어렸지만 추진력과 대외 설외력에서는 룩펠러를 능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

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던 플레글러는 곡물판매업을 해보려고 룩펠러에게 부지를 임대하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에 북군에게 식량과 생활용품을 조달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룩펠러의 석유사업이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장인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6만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것은 물론, 9만달러의 운영자금도 받아내

종업원에게 숙박부를 달라고 해서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말을 자기 이름 옆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신사가 아치볼드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 문구를 적어 넣지요?".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거지요. 혹시 이 호텔을 찾은 손님 가운데서 갑자기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제 숙박계를 본 중

한 통에 4달러

서 마침내 룩펠러와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룩펠러는 제유법을 발명한 당대 최고의 엔지니어 앤드류스와 대외 설외력이 뛰어난 플레글러라는 양 날개를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온전하게 보완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뒷날 룩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제국의 건설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의 일등공신을 맞아들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아치볼드입니다. 아치볼드는 원래 스탠더드 오일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한통에 4달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가 출장을 가서 호텔에 묵을 때면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적고 그 옆에 '한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문구를 빼뜨리지 않고 기록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쌓여 언젠가는 회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간 아치볼드는 밤이 늦어서야 호텔을 찾았습니다.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갑자기 자기가 숙박부에 이름만 쓰고 왔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업원들이 스탠더드 오일을 권할 확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치볼드는 회장에게서 특별 초정을 받았습니다. 회장을 만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한 아치볼드는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만났던 그 신사가 바로 룩펠러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룩펠러가 아치볼드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회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원을 옆에 두고 일하고 싶소." 살아가는 동안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단순히 생계만을 위해 일한다면 과연 얼마나 만족한 삶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쏟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정없이 마치 못해 하는 일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여 출세하려는 알뜰한 속셈이 아니라 일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여 열정을 쏟을때,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은 몇푼의 돈으로 비교가 안되는 값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행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물질적 소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자신이 하는일에 얼마나 열정을 쏟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나의 삶에 얼마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준 칼럼



이 준  
두란노침례교회 목사

나이 40을 넘겨 아버님과 여개를 맞대고 시작한 새벽 산행.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색함도 따라왔습니다. 물론 아버님과 여개의 산행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 3년 정도 아버님을 따라 동네 앞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본 것은 아버님의 등이었습니다. 긴 보폭으로 앞서가시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질까 봐 어두운 새벽 산길을 종종 걸음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공부를 핑계삼아 중단했으니 30년이나 묻어두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개를 맞대고 나란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개와 여개 사이를 어색함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어색함의 이유를 짚어보았습니다. 주변은 대화였습니다. 나란히 걷게되자 대화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주고받

는 문장들이 부자연스럽기만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숙성된 소재들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귀동냥한 사건사고들을 일순간 올려 나누는 대화...차라리 대화 사이 잠깐 잠깐의 침묵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문득 '나이 40이 되도록 아버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슬프기도하고 죄송스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

보탬도 되니 일석이조 아니냐.' 그 다음 날부터 아버님의 어깨와 제 어깨 사이를 썬내던 어색함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주일이면 떠올리게 되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9년 전 한국 방문 중에 경험한 이 추억을 통해 '난 좋은 아들이며 아바인가' 물론 합니다. 올해는 영적 아버지와의 관계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깨를 맞대

아버지... 아버지

버님의 발걸음이 곧바로 집을 향하지 않았습니 다. 가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시기에 '뭐 필요한 물건들 사시려나 보다.' 생각하며 뒤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발걸음이 임통한 장소에서 멈춰섰습니 다. 전신주 앞이었습니다. 보안등 하나를 달고 있는 전신주였습니다. 그 전신주에 다가간 아버님은 뒷부분에 위치한 스위치를 내려 등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제 호기심을 눈치채신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저 등이 쬐여 있는거야.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내가 이 등을 끄고 있지. 5분 더 걸으니 건강에 좋고 전기세 절약해서 나라 살림에

고 대화하며 산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사랑스런 음성으로 말씀해주십니다. 대화 중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시거나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따스한 손길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도 좋은 대화의 방법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우리와 영적 산책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함은 자유함과 평화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민중기 칼럼

천국으로 이사하기



민 중 기  
충현선교교회 목사

진학을 하게 되었고, 행하니 비인방을 우리 부부가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야곱이 세계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베냐민으로 올라가는 영적 쇄신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좋은 환경을 이데아 떨어버리고 도시의 사람들 속에 섞이고 싶어, 이사를 결정하였다. 불경기에 렌트비도 수백 불 절약할 수 있게 되어서 내심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오랫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서울 한 모퉁이의 약수터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적지 않은 책을 다 풀 수도 없는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려니 좀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가족들은 곧 한국의 생활에 익숙하여 지기 시작했다. 하수도에 왜 냄새가 나는지, 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지, 왜 거리가 지저분하냐는 아이들의 불평도 잠시 뿐이었다. 아이들은 속히 상황에 적응하여,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고, 산으로 놀러 다니고, 거리에서 사먹고, 그리고 게 임하면서 언제나 나가 놀 자세가 되어있었다.

짐을 싸고, 즐기고, 읊기면서, 이제는 인생도 정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보리라고 생각하였던 노트와 책들은 이제는 많이 버려야 했다. 천국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쓰던 물건을 모두 정리하여야, 뒤의 사람들이 귀찮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학생 때, 조지 래드(George Ladd)라는 유명한 성경신학자의 책이 도서관에 기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목회자는 이사할 준비, 말씀 전할 준비, 그리고 죽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보았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사택이 결정되지 않아서, 김영복 권사님 댁에서 두 주를 보내었다.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신경을 쓰시느라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으리! 돌아가신 고 김창도 장로님이 계시던 곳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이학진 장로님이 급작스럽게 이사하면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좋은 동네치고는 렌트비가 비교적 낮아, 무엇이 고장 나도 되도록 우리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고치면서 살았다.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몇 번이나 이사를 하여야 할지, 정말 번거로운 것이 이사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목민이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사는 그들에게 일상생활이었지 가끔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 아직도 나는 안정스런 생활에 길들여져 근본적으로 자기 부정이 힘든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나 자신을 다시 돌아본다. 정착과 안정에 길들여져 천국 가는 이사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D(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먼저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4월 29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숙성과정 학생모집 (학식,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 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이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less Shelving

마케팅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질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 금 삽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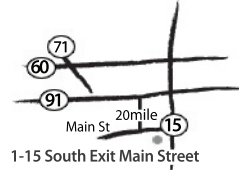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노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실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 가나 플러밍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 명 치과

SANG DON CHOI-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 이중창문교체전문

7월 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결혼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8월 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두란노대학교·신학대학원**  
목회학 · 신학 ·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목사 | TEL: (213) 507 - 1933  
1008. S. Kingsley Dr LA, CA. 90006



**유인신학대학,신학대학원**  
YUIN UNIVERSITY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TEL : 213-663-8640 FAX. 213-384-7898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플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323-731-9819  
1325 12th Ave. LA, CA 90018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성공! 이벤트로 드립니다!

지금 가입하면, **3개월 무료!** (최대 \$105 상당)

행사기간 2011년 7월 31일까지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AT&T, Verizon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는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걱정하신 분
- 평소 미국·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한국 등 국제전화를 많이 거시는 분
- 외출시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국제전화를 걸기를 원하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 **\$24.99** (기타 수수료 포함)

글로벌 플랜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114 한인업소 안내
-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 무료!**

한국 070 전화카드 필요 없다!

한국 전화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 없다!

전화카드 기능 매월 500분 제공

희망을 잃은 어린이들과 함께 합니다.  
T:562.483.4300 / www.compassion.or.kr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체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 **703.349.7216**  
동부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햇 산삼 나왔어요!

##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조기 햇산삼은 저희 업소에서만 해마다 유통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최상급 효능의 햇산삼을 사유림에서 캐 오고 있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 있는 그대로 들여와 두 주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도 부작용이 많으나 미국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 복용법은 임상 실제 노하우를 갖춘 상세 소책자를 이용하세요. 수확기 햇산삼은 해마다 8월 초순부터 500파운드 이상 입하합니다.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 산삼도매 한인 최대유통회사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600 / 200그램 - 소매가 \$2,400  
약 40~50년근 20뿌리 이상



\$200 / 70그램 - 소매가 \$800  
약 20~30년근 15뿌리 이상

산삼 수령을 이유로 비싸게 팔지 않으며 호수별 무게를 지켜드립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검역소, 면세통관을 도와드립니다. 고국 선물로 1인당 300그램까지는 합법적 면세통관이 무조건 허용됩니다. 미국법에 심마니는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직접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인증서 없는 산삼판매는 불법 유통되는 산삼이므로 적발시 처벌받습니다.

산삼 상식쟁기 8  
진짜 산삼이 이렇게나 많이 채취되는가?

미국에서는 해마다 진짜 산삼이 약300만 뿌리가 채취된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진짜 산삼이 연간 약 20~30뿌리에 불과하다. 미국은 천혜적 자원이 넘쳐 한국보다 효능이 더 낫다고 연구결과 밝혀졌다. 만약 구입시 인공으로 심은 장뇌산삼이 아닐까 걱정하시라면 20년근 이상의 산삼을 구입하시면 속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뇌산삼은 12년 이상을 땅 속에서 키워낼 수 없고 그 후로는 썩어 버리기 때문이다.

산삼의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 인증된 천종산삼 도매가격표

- 특1호: 가장 오래되고 수려한 산삼 - 맞춤형
  - 1호: 약120년 천종 산삼 - 1lb(454g) / \$2,400
  - 2호: 약100년 천종 산삼 - 1lb(454g) / \$1,700
  - 3호: 약50-80년 천종산삼 - 1lb(454g) / \$1,400
  - 4호: 약30-50년 천종산삼 - 1lb(454g) / \$1,200
  - 5호: 약30년이하 천종산삼 - 1lb(454g) / \$900
- (호수에 따라 일시 품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함)

# 효능이 찬사 영미연구장 세일

## 8년만에 도매가이하 대세일 단행 7병을 100불에...

### Citric Acid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 구연산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노벨상 3회

- 바르다덴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산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어 피로 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록 박사, 린덴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6병을 \$100에...  
\$30/ea 1병은 2-3달분 매일의 80배, 레몬의 200배의 농도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피로물질을 신속히 분해해 2시간 내에 피로가 사라지게 한다.
-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와 자연치유력에 최대의 도움을 준다.
-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 활동이 원활해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 변비를 없애준다.
-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간장에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 간을 보호한다.
-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산화탄소를 분해,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정혈, 살균작용을 한다.
- 동맥경화, 고혈압, 간장병, 류마티스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 산성화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
-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신과 알칼리의 균형을 이루어 항체능력이 향상된 약알칼리성 혈액을 갖게 한다.
- 외용으로 발모증세, 무좀, 가려움증, 피부관리에도 사용 가능하다.

- 구연산 복용 체험담 상세한 체험 사례를 다 적지 못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만성 신부전증으로 복용 2주만에 1500cc의 소변을 봤다.
  - 당뇨가 심했는데 한 달 복용 후 점점 떨어짐을 확인했다.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 몸이 통통 부어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 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추는 것을 확인했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기증상이 있었는데 정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나는 다른 제품이 없어도 구연산만 있으면 건강하게 산다.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찍어 바르면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로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깐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외출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식약처럼 두근 두근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100% MONEY BACK GUARANTEE  
2개 사면 1개 공짜  
\$70/ea

### 일본 흡쇼핑 500만개 판매 초 대박 히트상품 **흰눈썹에도 OK**

나노 은이 햇빛 반응으로 스스로 발색하여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흑갈색으로 변하게 해줌. 유사 상품이 없는 최고 인기 특허 기술상품. 바르고 나서 헹구지 않음. 햇빛을 직접 쬐지 않아도 완전히 변함. 완전 백발에 하루 1번, 4-5일만 발라줘도, 마술처럼 흰머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는

## 세계 최초, 새로운 타입의 색소 착색 화장품 루미나 매직 S 헤어크림

1. 비르민 풀, 다시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양 화장품이며 염색약이 아닙니다.
3. 착색한 모발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4. 염하는 색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모발이 상하지 않고 탈모를 예방합니다.
6. 냄새가 전혀 없고 보습효과를 줍니다.
7. 모발/두피를 윤기있게 건강하게 합니다.
8. 어떤 부작용도 없으며 매우 안전합니다.
9. 흰눈썹에도 비르민 점점 까맣게 됩니다.
10. 한번만 발라도 연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원래(백발) 2번(연갈색) 4번(진갈색) 5번(흑갈색)  
HQ Health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나온 자료입니다

Buy 2, Get 1 Free  
1병은 사용법에 따라 2-3달분

보은쿠폰세일  
루미나 2개 구입시 구연산 2병(60불), 루미나 매직 헤어 크림 미니팩(10불) 3개 등, 총 90불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본 쿠폰 지참자에 한합니다.)

## HQ Health, Inc.

L.A. 본 점 (213)365-2100  
O.C. 직영점 (562)760-2359

L.A. 본사 이전 안내 (3월 1일부터)  
고객 방문이 편리하고 쉽게 찾아 오실 수 있는 1층 오픈 매장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과 크렌셔 코너이며 주차가 용이합니다.

